



즉시 배포용: 2024년 7월 2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서던 티어 원탁회의 개최

교육자, 학부모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함께 주 전역의 경청 투어 계속

전국 최초의 중독적 소셜 미디어 피드 대응법, 학교 기반 정신 건강 클리닉 확대, “Get Offline, Get Outside” 캠페인 시행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및 복지 관련 주지사의 리더십 지속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주 전체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서던 티어의 교육자 및 이해 관계자들과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청 투어는 지난주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주요 이해 관계자와 추가 원탁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지사가 강조했듯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올해 말 발표될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주정부 정책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내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지원 기기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청소년과 교육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쳐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소중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원탁회의는 윈저 하이스쿨(Windsor High School)에서 열렸으며 지역 내 여러 학교의 관리자, 교사, 학부모가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다양한 교육 관계자와 함께 주 전역에서 추가 원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6월 공개된 [Pew Research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교사의 72 퍼센트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큰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더욱 나은 성과를 도출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Hochul 주지사는 올해 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응하는 뉴욕주 정책을 제안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오늘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학교를 포함해 주 전역의 수많은 학교가 현재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주지사는

개별 학교 정책을 기반으로 주 전역의 다양한 학교와 이해 관계자가 본 성공과 도전에 대한 자세한 관점을 수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탁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저 센트럴 교육구 교육감 Jason Andrews
- 베스탈 중앙 교육구 교육감 Clifford Kasson
- 노리치 중앙 교육구 교육감 Scott Ryan
- 베스탈 중학교 교장 Sarah Wiggins
- Mackenzie Dubois, 원저 중앙 교육구 사회 복지사
- Jill Houseknecht, 원저 중앙 교육구 교사
- Darren Safranek, 학부모

이번 청문회에 앞서, 중독적 소셜 미디어 피드 대응법, 학교 기반 정신 건강 클리닉 확대, 아동과 가족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소셜 미디어에서 벗어나 이번 여름 야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Get Offline, Get Outside**” 캠페인 시행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및 복지 관련하여 Hochul 주지사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추가적인 라운드테이블이 향후 수 개월 동안 진행되며 다양한 교육자, 학부모, 학생, 기타 운동가 등이 참여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독적 소셜 미디어 피드 대응법, 학교 기반 정신 건강 클리닉 확대, 아동과 가족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소셜 미디어에서 벗어나 이번 여름 야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Get Offline, Get Outside**” 캠페인 시행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및 복지 관련하여 Hochul 주지사의 노력이 계속 추진됩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과 기타 인터넷 지원 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특히 팬데믹 이후 시대에 학습 손실이라는 지속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노력은 학생들이 인터넷 산만 금지 구역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선도적인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보호법

6월 Hochul 주지사는 뉴욕의 아동 청소년에게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주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중독적 피드 활용 금지법(SAFE for Kids Act)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중독성 기능을 플랫폼에서 제한하도록 요구합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중독적인 피드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중독적 피드 활용 금지법은 미국 전역의 모든 주에서 법으로 서명된 최초의 법안입니다.

뉴욕 아동 데이터 보호법(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은 사전 동의를 받거나 웹 사이트의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온라인 사이트 및 연결 장치에서 18세 미만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유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뉴욕주 투자

주 전체의 정신 건강에 대한 10억 달러 투자의 일환으로, Hochul 주지사는 또한 청소년들과 이들의 가족을 위해 정신 건강 케어 및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주지사는 2025년 집행 예산에서 추가 투자를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중점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

Hochul 주지사는 제정 예산에서 주 전역의 청소년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하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1월 주 안건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학교 기반의 정신 건강 클리닉을 위한 스타트업 기금 2,000만 달러를 발표했으며](#), 관심있는 학교들이 클리닉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 순환적 신청을 론칭했습니다. 발표는 11월에 지급된 510만 달러에 이은 것으로 신속히 요구되는 학교 82곳을 포함해 137개의 새로운 학교 기반 클리닉을 지원하며, 주 전체에 걸쳐 총 클리닉 수는 1,200곳을 넘어서게 됩니다.

2025 회계연도 예산은 커뮤니티에서 또는 필요하다면 집에서 치료를 받는 청소년을 위한 리소스 증대를 포함해, 학교 환경 바깥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1,900만 달러 이상의 이러한 투자에 기초합니다. 주거형 또는 병원 입원 정신 치료를 받을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게 우회적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Youth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팀과 같은 핵심 이니셔티브는 가정 및 가능하다면 커뮤니티에서의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960만 달러로 확대될 것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투자에 더해, 주지사는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 정신건강 임상의를 위한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4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Get Offline, Get Outside” 지원

올해 여름 Hochul 주지사는 뉴욕의 아동청소년과 가족들이 전화기와 컴퓨터를 내려놓고 소셜 미디어에서 잠시 벗어나 여가를 즐기고 야외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여름 캠페인인 “Get Offline, Get Outside”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의 수영장 이용료 면제, 야외 활동 접근성 확대 등과 더불어, 이번 캠페인은 올해 여름 주립공원의 이용이 이미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7월 4일 주말 동안 주립공원 방문객 수는 [주 전역에 걸쳐 28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